



광주·전남 소방인력 태부족

기준에 비해 市 868명, 道 1,516명 미달

재정 열악 충원 업무 못 내

광주·전남 시·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소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방인력 증원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증원은 커녕, 일상적인 경비 충당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소방인력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시도 당초 채용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제출한 '2007년 소방인력 증원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소방인력 130명을 증액키로 하고 정부 교부금을 지원받았지만 재정현황상 단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경우 총액인건비 반영인원은 67명이었고, 이중 56명을 채용해 83.6%의 채용률을 보였다.

이처럼 소방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전남의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소방기준인력(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적정소방인력)은 1천 712명이지만 현 정원은 844명에 불과해 기준인력에 비해 868명이나 부족했다. 전남도는 소방기준인력 3천 80명 중 거의 절반인 1천 5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 전체 소방공무원

의 60.8%에 해당하는 528명이 2교대를, 94명(10.8%)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3교대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고 전체 78.3%에 달하는 1천 226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천 473명의 소방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2%인 472명만 채용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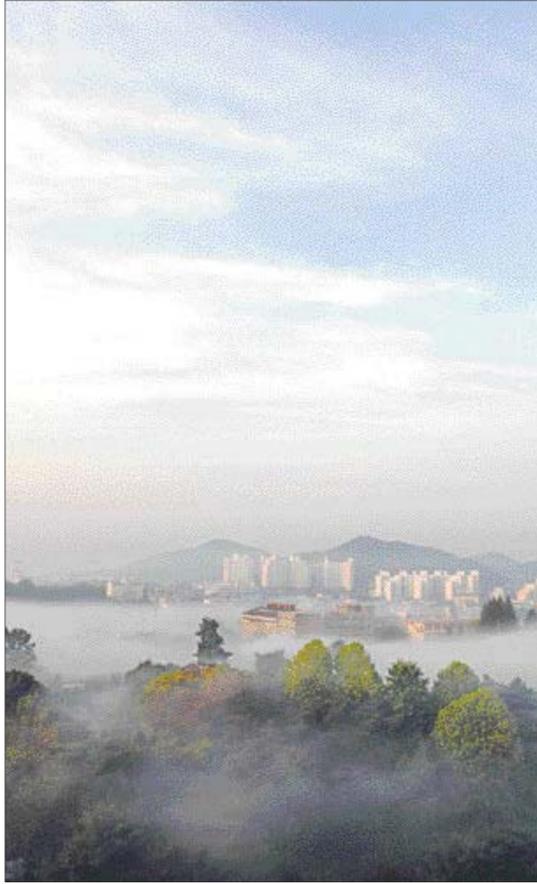
한편 한국은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수가 1천 587명으로 프랑스 1천 29명, 일본 820명 등 OECD 주요국들에 비해 많았으며, 광주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1천 687명을, 전남은 이보다 낮은 1천 244명을 기록했다.

김유정 의원은 관계자를 "소방인력 증원 총액인건비가 용도를 지칭하지 않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원됐지만, 소방인력 증원계획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소방인력 전체 총액

인건비로 713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사용된 예산은 759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여건으로는 부족분인 46억원 가량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안개 낀 나주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안개가 자주 끼고 있다. 6일 새벽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시내가 짙은 안개에 뒤덮혀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전남 보복범죄 3년간 343건

증인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서둘러야

최근 3년간 수사기관에 범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범죄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34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법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정보 제공자·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현황' 자료를 따르면 2004년 이후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1만 5천 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5천 535건 ▲2005년 4천 765건 ▲2006년 4천 439건 ▲2007년 573건 ▲2008년 8월 현재

174건 등이었다.

또 함께 제출한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범죄유형별 보복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2천 167건으로 가장 많고 ▲재물손괴(237건) ▲업무방해(161건) ▲협박(151건) ▲살인(1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의 보복

범죄 발생 건수가 1천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63건) ▲충남(532건) ▲부산(385건) ▲광주·전남(343건) 등 순이었다. 광주·전남의 경우 2006년 278건에서 2007년 117건으로 다소 줄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 못한 만큼, 선진국과 같은 범죄 신고자·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부않고 게임한다 꾸중하자 中3 아파트 옥상서 투신 자살

6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J아파트 앞 화단에서 중학생 A(14)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A군은 최근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고 최근 3일간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으며, 이날 이곳에 친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직전 이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A군이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최진실 괴담' 중간 유포자 압수수색

전달자도 사법처리 검토

텔런트 최진실(40)씨 '사채업 괴담'의 근원지를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후 괴담을 중간에 유포한 정형아 포착된 증권사 직원 D씨의 컴퓨터와 그가 사용한 메신저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괴담을 포털사이트 증권가 페이지에 올렸다가 입건된 증권사 여직원 A씨를 시작으로 증권업계 종사자 B씨와 C씨까지 유포경로를 역추적했고 C씨로부터 "D씨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괴담을 보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가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며 "강제수사 기법을 동원하는 것은 중간 전달

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해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속도를 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해 괴담 내용을 중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괴담의 근원지가 증권가에서 유료로 소수 고객에게 배포되는 사실 정보지(속칭 짜리짜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괴담의 원인이 정보지로 특정되는 대로 해당 정보의 생산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7일 오후 5~6시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취 및 상암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밤 졸던 노인 절도죄 날벼락



○~80대 노인이 농장에 들어가 밤을 졸다가 농장 주인에게 적발돼 절도 혐의로 경찰서 행.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82)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H농장에 떨어져 있던 밤 3kg(시가 1만원 상당)을 주워 가려했다는 것.

○~A씨가 밤을 졸던 모습을 목격한 농장 주인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으며, "밤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 두명만 아니다.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동하기 위해 인근 산을 오르던 중 떨어져 있던 밤이 보이기에 몇 개 주워가도 괜찮겠다 싶어 가져갔는데 잘못된 것 같다"며 선처를 요구.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어머니 동거남 살해

사체 유기 20대 검거

순천경찰은 6일 어머니의 동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워 유기한 A(26)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어머니의 동거남인 B(55)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숨진 B씨의 사체를 어머니의 화물 트럭에 실은 뒤 이날 밤 9시께 순천시 해룡면 한 농로에서 기를 부어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와 동거를 해오던 B씨가 자주 어머니를 때린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구례경찰 간부

만취 교통사고

구례경찰서 간부 경찰관이 무면허·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구례경찰서 소속 A(44)경위는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자신의 아내 소유인 오토마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엑센트와 BMW 등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일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무면허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경찰 조사결과 A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와 동거를 해오던 B씨가 자주 어머니를 때린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편의 건강을 위한 발 건강 관리 방법 소개

1. 발 건강의 중요성

2. 발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

3. 발 건강을 위한 제품 소개

4. 발 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5. 발 건강을 위한 예방 방법

6. 발 건강을 위한 자가 진단

7. 발 건강을 위한 운동 방법

8. 발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

9. 발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10. 발 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아이엘리시아

www.1099.com

상품권 판매, 출판사, 각종 모임 및 행사(100여회, 50만~200만명)

1. 아이엘리시아는 무엇인가?

2. 아이엘리시아의 특징

3. 아이엘리시아의 장점

4. 아이엘리시아의 효과

5. 아이엘리시아의 사용법

6. 아이엘리시아의 주의사항

7. 아이엘리시아의 문의처

8. 아이엘리시아의 연락처

9. 아이엘리시아의 홈페이지

10. 아이엘리시아의 블로그

052) 671-1199